

U-러닝 미래형 LCD 전자칠판

전자칠판 + 대용량 노트북 + AP

www.tyunc.com 031_484_3858

교육연합신문

EY MALL

www.eymall.com

2016년 11월 2일(수) 제 269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내: 02-541-2000



2016년 인증-제고 총동문순회회를 산행 9번

산계절은 가을로 성품 접어드는 길목에서 인천중학교·제물포고등학교 총동문과 동문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동문가족행사를 가졌다. 지난 10월 23일 인증중·제물포고총동문순회와 주관으로 인천 양반대에 있는 덕적도 비조봉에서 '2016년 인증제고 총동문순회회'



김해수남중, 학교로 찾아오는 진로직업 체험 활동 13번

경남 김해 수남중학교는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 람으로 10월 27일 동아리 진로 체험과 10월 28일 학교로 찾아오는 진로직업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1원차 동아리 진로 체험은 주 2시간씩 실시되고 있는 15개 동아리반과 연계된 장소로 체험을 떠났다.



장성중앙초등학교 학교방방 16번

장성중앙초등학교는 신비의 정신이 살아있는 문물여 정성의 중심학교이다. 노령의 높은 기성과 황룡강의 맑은 정기를 받아 학생들은 품성이 바르고 활기가 넘친다. 하지만 전교생 475명 중 시설 학생이 11명, 다문화가정 학생 34명 등 교육복지 대상학생이 33%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혜택

두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기쁨

교육부, 제4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교육장 조희연) 미래셋대우(사장 홍성국)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와 함께 10월 29일 오전 과천 미래셋대우 연수원에서 제4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대회에 참가한 다문화학생들을 격려했고 시상하였다.

이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예선을 거쳐 추천된 다문화학생 52명(초등 31명, 중등 21명)이 참여해 말하기 실력을 뽐냈다.

참가한 학생들은 국내에서 출생

하거나 부(모)나라에서 성장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학생들로, 말하기 대회 참여를 계기로 이중언어 실력을 키우고 그 재능을 바탕으로 한국과 부(모)나라의 기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등의 다양한 참가 동기를 밝혔다.

이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한국어와 부모(모)나라 언어로 글과 미래, 한국과 부(모)나라 간 생활과 문화 비교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발표했으며, 중등부의 경우 진로계획을 소개하고 다문화 배경이 본인의 진로 설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심사

거처 교육부 장관상과 특별상(미래셋대우이사장상, 한국외대총장상, 다문화교육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학생들을 지도한 학교에도 격려금이 지원되었다.

또한, 이 대회 참가자들이 이중언어 재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미래셋대우와 한국외대가 준비한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진 학생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교육부도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생과 협력의 동북아 생태계 조성

한중일 대학생 교류프로그램 CAMPUS Asia 사업 본격 실시

한국·중국·일본 3국의 협력을 선도하는 인제 육상을 위한 캠퍼스아시아(CAMPUS Asia)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중국 교육부 및 일본 문부과학성과 함께 캠퍼스아시아 사업을 이끄는 17개 사업단(한중일 대학간 컨소시엄)의 명단을 10월 31일 발표했다.

캠퍼스아시아 사업은 2010년 5월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신

구사업으로 채택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범 운영됐다.

그리고 2015년 11월 개최된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올해 1월 개최된 제1차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1,900여 명의 학생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39명의 한국 학생이 등 프로그램을 통해 북

수학위를 취득했다.

이러한 교류과정을 통해서 한중일 3국 학생들이 전공학문 외에도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공통된 이슈에 대해 토론하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일 3국은 동 사업을 시범사업에서 본격적인 사업으로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말 각국별 심사를 진행한 후 9월까지 3국 협의 과정

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기존 8개 시범사업단과 더불어 총 17개 사업단의 학생 교류를 지원하게 된다.

'아시아 판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캠퍼스아시아 사업은 한중일 3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힐링!-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

영광교육지원청, 친구와 함께하는 어릴림의 시간 가저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철)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1박2일) 영광읍 탐사사에서 다문화가정 초등·중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친구와 함께하는 어릴림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캠프를 운영해 자연 속에서 친구와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어릴림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에서는 사찰에서의 예절, 마음 열기, 친구와 함께 산행, 한지공예, 릴링 명상(좌선)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 최혜수 소설가의 마법과 현실 그리고 소설이아닌 주제 "무인 이야기나 비현실적 마법 이야기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름답다"는 인문학 강의와 자연 친화적인 체험활동으로 서로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 학생들과 함께 공원산책로 걷기와 산행에 참여했던 담당 선생은 "우리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계기로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배려하고 공감할 줄 아는 마음 따듯

한 학생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저를 참가했을 때 낯선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1박2일 동안 자연 속에서 친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우정을 더 돈독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철 교육장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자기정체성을 인식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원 기자 jsw@

개원 4주년 청소년디딤센터...치유효과 높아

여성가족부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경기 도 용인시 소재, 이하 '디딤센터')가 개원 4주년을 맞았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디딤센터는 만 9~18세 청소년 중 우울, 불안, 비평, 품행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전문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전문기관이다. 지난 2012년 10월 10일 개원 이래 현재까지 약 3600여명의 청소년이 장·단기 과정을 수료했다. 복원위원회의 평가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1개월 과정(연 1회)·4개월 과정(연 2회)·4~6개월 과정(연

28회)으로 운영된다. 센터에 따르면 이 곳의 상담·치료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과정을 수료한 청소년과 보호자 121명을 대상으로 추경검사를 한 결과와 자존감상 자가 보고 때 평균 25.8에서 수료시 27.7로, 수료 이후에는 29.3로 높아졌다.

개원 4년인 디딤센터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상담·치료, 교육, 진로, 보호, 자립지원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과 음악·미술·오기명상 등 특수치료, 정신의학적 진로, 동아리, 문화체험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를 개선하고 대인교유 및 진로탐색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족역량이 취약한 정서·행동장애 입교생 가정을 위한 '가족상담자(매달리멘토)'를 도입,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자녀 양육방법 및 정서적 코칭(지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치료·재활이 필요한 청소년은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교육청·학교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교할 수 있다.

학기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업 인수가 인정된다. 일반가정 청소년은 월 30만원, 학교초생활보호대상급금지와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다.

황진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정서·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딤센터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시설을 확충해 우수 치유사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의 뒷골목

2016.11.3 ~ 13 문학시어터

평일 7시 30분 / 토 4시 / 일 3시 / 월 5시

문학경관장 아구장 1루 지하

이벤트: 2016.11.3(토) 10:30~11:00 10월 10일 기념 특별행사로

주최: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교육재단, 서울교육진흥원, 서울교육재단, 서울교육진흥원, 서울교육재단, 서울교육진흥원

문의: 02-4143-1777

주최: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교육재단, 서울교육진흥원, 서울교육재단, 서울교육진흥원

문의: 02-4143-1777

주최: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교육재단, 서울교육진흥원, 서울교육재단, 서울교육진흥원

문의: 02-4143-1777